민속

민俗

CRAFTWORK

125

약장
藥欌
Medicine Chest

조선 19세기 | 세로 31.9 가로 107.6 높이 123.4 | 느티나무 · 소나무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L 31.9 W 107.6 H 123.4 | Sam-leaf zelkova and pine wood

약재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장이다. 앞면 윗단은 여러 개의 작은 서랍의 수납공간이 있고 아랫단은 다용도의 공간으로 제작하였다. 천판天板은 양 귀의 날개를 주먹장사개짜임으로 연결하여 끝이 두루마리 모양으로 올라간 형태이며, 연결부위는 감잡이로 보강하였다. 약을 담는 서랍의 칸 수는 9열씩 9줄로 81개이며 앞면 중앙에 둥근 고리형 손잡이를 달고 그 좌우로 약재명藥材名을 새겨 놓았다. 쇠목과 기둥의 연결부위는 감잡이로 보강하였다. 약장의 아랫단에는 희귀 약재나 독약재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여닫이문으로 제작하고 자물쇠를 달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문판에는 둥근 앞바탕에 배목 하나의 둥근 고리를 부착하고 약과형藥果形 경첩을 달았다. 장 위쪽의 쇠목과 기둥 사이에는 감잡이로 보강하고, 쇠목과 동자童子 사이에는 세발감잡이를 붙여 보강하였으며, 양 옆면 아랫부분에는 둥근 바탕에 활모양 들쇠를 부착하였다. 다리는 감잡이를 대었으며 네 면에는 박쥐형태의 풍혈風穴이 있다.

A chest of drawers designed for storing different medicines separately according to type. The front side consists of small drawers on the top, and a multipurpose storage space on the bottom. There are a total of 81 drawers for storing medicine (9 rows by 9 columns). The ring attached in the middle of each drawer serves as a handle, and engraved to its left and right are characters indicating the medicine that belongs inside that drawer.

126

반닫이
櫃
Bedding Chest with Half-Opening Front

조선 19세기 | 세로 48.0 가로 104.2 높이 79.6 | 느티나무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L 48.0 W 104.2 H 79.6 | Saw-leaf zelkova wood

반닫이는 앞면을 아래위 두 면으로 나누고 경첩을 달아 한 면만 열리도록 한 장방형의 궤櫃로 옷가지는 물론 서책, 두루마리, 제기 등 여러 가지의 다양한 생활용품을 보관하고, 천판天板에는 항아리나 소품, 이불 등을 올려 놓고 사용했던 다목적 수납가구이다.
이 반닫이는 주로 개성이나 평양지역에서 많이 제작되었던 것으로 두꺼운 느티나무 통판으로 만들었다. 장의 제작방법처럼 앞면을 쇠목과 동자童子로 분할하여 몸체보다 작은 문판과 앞널 좌우에 쥐벽칸을 두었다. 내부 상단에는 들쇠 형태의 손잡이가 부착된 두 개의 서랍을 짜 넣었는데 이 서랍을 빼면 양측 안쪽에 숨겨진 서랍이 있어 중요한 귀중품을 보관하여 주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런 공간으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천판은 몸통보다 크게 개판蓋板으로 제작하였으며 천판과 옆널, 밑널과 옆널은 장부촉짜임으로, 앞널과 옆널은 맞짜임으로 연결하였다. 장석은 두꺼운 무쇠로 만들었는데 문판과 앞널은 가장자리를 따라 둥근 광두정廣頭釘을 달아 장식하였으며 연결 부위에는 태극문양 호리병 경첩과 약과형 경첩을 달아 여닫을 수 있도록 하였다. 문판에는 투각만자문약과형透刻卍字文藥果形 앞바탕을 부착하였으며, 선뻗침대는 앞바탕에 고정되어 천판 아래로 밀어 끼워 넣는 방식으로 특징적이다. 앞널 중앙에는 팔괘문八卦文과 만자卍字를 투각한 팔각형 배꼽장식을 부착하였다. 다리는 옆널을 쭉 뻗은 몸통 일체형이며 넝쿨문양으로 장식한 박쥐형태의 풍혈風穴이 있다.

A chest with a half-opening front made of a thick panel of saw-leaf zelkova wood. Similar chests were mostly produced in and around the cities of Gaeseong and Pyeongyang. As in making a wardrobe, the front side is divided with rails and stiles, resulting in the main opening panel to be shorter than the length of the chest and flanked by two panels for separate storage spaces inside.

127

머릿장
單層欌
Headside Chest

조선 19세기 | 세로 40.7 가로 94.0 높이 82.0 | 소나무 · 배나무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L 40.7 W 94.0 H 82.0 | Pine and pear wood

머리맡에 놓고 귀중품이나 일상용품을 간편하게 보관 · 사용하는 단층장이다. 이 머릿장은 소나무와 배나무로 제작하였으며 천판 · 몸체 · 다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천판天板은 두리마리형으로 양 귀의 날개를 주막장끼움으로 연결하였고 천판과 옆널은 장부짜임으로 연결하였으며 각 연결부위에는 감잡이를 대었다. 수납공간은 여닫이문과 서랍으로 구성되는데 문판에는 귀장식, 앞바탕, 약과형 경첩을 부착하였으며 두 개의 서랍은 중앙에 세로로 동자童子를 붙이고 활모양 들쇠 손잡이를 달았다. 앞면은 서랍 · 문판 · 쥐벽칸 · 머름칸의 면분할을 정방형으로 동일하게 구획하여 짜임새 있게 제작하였다. 각 알판 앞면은 여의두문如意頭文과 안상문眼象文을 번갈아 음각으로 장식하였다. 다리는 호족형虎足形으로 굽어진 다리 안쪽에 대나무 장식을 조각하고 족대足臺에 내다지로 짜맞춤하였다.

A short chest designed to be placed near where the head would rest during sleep, for conveniently storing and taking out valuables or everyday goods. This particular headside chest is made of pine and pear wood, and is composed of three parts: the top board, the body and the legs.

128

경상
經床
Reading Desk

조선 19세기 | 세로 30.9 가로 64.0 높이 29.2 | 느티나무 · 참죽나무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L 30.9 W 64.0 H 29.2 | Saw-leaf zelkova and red toon wood

글을 읽거나 쓰기 위한 문방가구로 주인과 내객來客, 또는 연장자의 위치를 지키는 역할도 겸한 평좌용平坐用의 낮은 책상이다. 경상은 원래 사찰에서 불경을 읽을 때 사용하다가 조선시대 이후 민가에서도 사용하게 되었다. 이 경상은 천판天板 양 끝에 두루마리 형태의 개판蓋板이 있고 호족형虎足形 다리를 갖춘 전형적인 경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천판과 기둥, 쇠목과 옆널에 감잡이를 부착하여 연결부위를 보강하였다. 서랍은 4개의 동자童子를 부착하여 3등분하고 그 사이에 여의두문如意頭文을 2조의 음각선으로 장식하였으며, 중앙에는 서랍을 밀고 당길 수 있는 활모양 들쇠 손잡이와 은혈隱穴 자물쇠를 부착하였다. 좌우 옆널은 각각 중앙에 1개의 동자를 부착하여 2등분하고 그 안에 여의두문을 장식하였으며, 천판 아래 네 귀에는 귀장식을 부착하여 천판의 구조를 보강하고 안정감을 주었다. 다리는 족대足臺에 내다지로 짜맞춤하고 굽어진 호족의 안쪽에는 죽절竹節의 장식다리와 바깥쪽에는 초각草刻 풍혈風穴이 있다.

A low floor desk for reading or writing, which also served to mark the place in a room for the elderly or the host when greeting a guest. This piece of furniture originated from sutra reading desks used in Buddhist temples and came into use in private homes in Joseon. This item, from the 19th century, takes the form of a traditional sutra reading desk, with scroll-shaped side decorations on the edges of the top panel of the desk, and supported by tiger-paw-shaped legs.

129

어피함
魚皮函
Fish Skin Case

조선 19세기 | 세로 29.5 가로 57.8 높이 29.5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L 29.5 W 57.8 H 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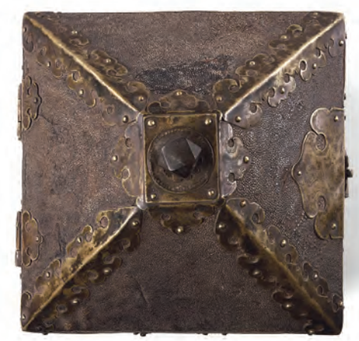
함은 깊은 몸체에 운두가 얕은 뚜껑을 경첩으로 연결하여 여닫을 수 있도록 한 상자이다. 문서 · 패물 · 재화 등 귀중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자물쇠를 채우도록 되어 있다. 이 함은 외면에 상어가죽인 사어피沙魚皮로 쌌으며, 내부에는 뚜껑받침을 둘렀다. 앞면에는 만자문과 박쥐문이 투각된 제비초리형태의 자물쇠앞바탕에 길고 끝이 약간 외반外反된 낙목落目을 달았다. 긴 낙목은 뚜껑을 열어 뒤로 젖혔을 때 그 무게에 의하여 경첩에 무리가 오지 않도록 받치는 기능이다. 뒷면에는 뚜껑을 여닫을 수 있도록 약과형藥果形 경첩을 2곳에 부착하였다. 양 옆면에는 운반하기 편리하도록 들쇠를 달았고, 바닥에는 나무로 깎은 4개의 유두형乳頭形 발이 있다.

A deep case connected to a shallow lid with hinges. On the opposite side of the hinges is an apparatus for padlocking so that the case functions as a safe for securing important documents, jewelry, money and other valuables. The case is covered with shark skin and a separate piece rising from the inner rim of the box supports the lid from inside.

130

인궤
印櫃
Seal Box

조선 19세기 | 세로 21.0 가로 21.0 높이 25.0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L 21.0 W 21.0 H 25.0



인장印章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상자이다. 인궤는 경첩이 달렸고 뚜껑에 운두가 있어 함의 형태를 띠지만, 화려하고 견고한 금속장석을 많이 이용하여 귀한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중요성과 상징성을 부여하여 '궤櫃'라고 표기한다. 이 함은 오동나무 백골白骨에 외면에는 상어가죽인 사어피沙魚皮를 입혔다. 내부에 뚜껑받침을 두었으며 뚜껑은 제형梯形이다. 각 모서리마다 귀싸개로 감싸고 못을 박아 견고하게 제작하였다. 앞면에는 제비초리형태의 자물쇠바탕을 부착하고 넝쿨문이 음각된 긴 낙목落目을 내렸는데 끝이 물고기 꼬리 모양으로 갈라졌다. 긴 낙목은 뚜껑을 열어 뒤로 젖혔을 때 그 무게에 의하여 경첩에 무리가 오지 않도록 받치는 기능이다. 뒷면에 뚜껑을 여닫기 편리하도록 2곳에 제비초리형태의 경첩을 달았으며, 양 옆면에는 간략화한 박쥐문 바탕의 활모양 들쇠를 아래위로 2개씩 부착하였다. 바닥 네 귀에는 나무로 깎은 유두형乳頭形 발이 달려 있다.

A box made of unvarnished paulownia wood covered with shark skin, and designed for storing seals. An internal support piece exists for the trapezoidal lid, and strips of metal are nailed to the outer edges to make the box sturdier.

131

지통
紙筒
Bamboo Paper Roll Stand

조선 19세기 | 지름 18.5 높이 16.3
Joseon Dynasty (19th Century) | D 18.5 H 16.3

축으로 된 색간지나 편지지 등 종이를 꽂아 보관하는 통이다. 이 지통은 굵은 대나무통을 세 쪽으로 쪼갠 다음, 대쪽 7쪽을 모아 평면이 칠엽화형七葉花形을 이루도록 붙이고 바닥에 오동나무 판을 대어 막았다. 각 면에는 대나무와 괴석, 매화와 새, 해와 도약하는 잉어, 국화와 벌, 소나무 · 영지와 사슴, 파초와 학, 연꽃과 오리 등 장수, 부부애, 입신출세 등 길상적 의미가 담긴 그림을 표현하였는데, 대쪽 표면에 도안하여 세세하게 새긴 다음 그 외 바탕은 껍질을 벗겨내고 흑칠黑漆하였다.

A stand for holding rolls of paper. The sides are made of seven bamboo strips, each produced by horizontally dividing a thick bamboo segment in three. The strips are connected so that, from above, the stand resembles a flower with seven petals. The bottom is sealed with a piece of flat paulownia wood. Each strip depicts symbols of good fortune, formed by first drawing the design in detail on the outer surface, engraving the design, peeling away the remaining bark, and finally coating the backdrop black with lacquer.

132

거북모양 등가
龜形燈架
Turtle-Shaped Oil Lamp Holder

20세기 초 | 높이 25.8 길이 22.5
Early of 20th Century | H 25.8 L 22.5

기름을 담아서 불을 켜는 등잔을 올려 놓는 받침대로 등잔걸이, 등경걸이라고도 한다. 사실적으로 조각된 거북모양의 받침대에 8각의 대나무마디모양竹節形 기둥과 연꽃잎을 양각한 원형 등잔받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A stand for holding an oil lamp. The base is a detailed, realistic representation of a turtle, from whose shell protrudes an octagonal pole with nodes to resemble bamboo. The pole supports a cup embossed with lotus petals, on which an oil lamp is to be placed.

133

촛대
燭臺
Candle Holder

20세기 초 | 높이 72.4 지름 20.4
Early of 20th Century | H 72.4 D 20.4

초를 꽂아 불을 밝히는 조명구이다. 이 촛대는 초꽂이 · 기둥 · 받침의 기본 구성에 화선火扇과 소등구消燈具를 부착한 형태이다. 각 부분이 분리되는 조립식 촛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형 받침과 기둥은 하나로 주조되어 무게 중심을 잡고 있으며, 기둥 끝에는 짧은 초꽂이가 있다. 기둥에는 화선과 기둥을 연결하면서 화선이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쌍희자雙喜字가 투조된 연결구를 꽂은 다음 초받침접시를 끼웠다. 원형의 화선은 불빛이 사방으로 퍼지는 것을 막고 빛을 반사시켜 앞쪽을 밝게 하는 역할을 하는 판으로, 한 쌍의 박쥐문을 서로 마주보게 시문하였다. 화선의 위쪽에는 앞으로 둥글게 구부러진 긴 대를 부착하였으며, 그 끝에 촛불을 끄기 편하도록 고깔모양의 소등구를 걸어 놓았다.

A stand that functions as a lighting apparatus when holding a lit candle. Attached to the main body of underprop, support pole and base pan for catching wax droppings, are a reflection disc and removable candle snuffer. The entire piece can be dismantled and reassembled, convenient for storage when not in use.

134

박기종 관복
朴琪淙官服
Official Dress of Bak Gi-jong

조선 19세기 | **길이** 120.5 **화장** 91.0 **흉배** 16.0×19.0
부산광역시 시도민속문화재 제 7호
Joseon Dynasty (19th Century)
L 120.5 **Sleeve** 91.0 **Embroidered Chest Insignia** 16.0×19.0
Local Folklore Materials No. 7 of Busan Metropolitan City

박기종朴琪淙, 1839 ~ 1907은 『동래부계록』에 의하면 동래부 소통사 · 거제도 옥포 소통사1896 · 수신사1876 · 부산항경찰관1886 · 다대포진수군첨제사 겸 동래감목관1893 · 부산항검사관1893 · 절영도진수군첨제사1894 · 부산항경무관1894 · 외부참서관1898 · 중추원의관1900 등 개항장의 치안과 무역 그리고 외교업무 담당하는 관직을 주로 지냈다.
이 의복은 박기종이 1900년 이전에 관직을 수행하면서 착용하였던 관복으로 판단되며, 소재는 숙고사 또는 갑사로 짙은 녹색 겉감에 밝은 청색 안감으로 구성하였다. 가슴 앞부분과 뒷부분에 단학單鶴의 흉배가 달려있다. 소매는 직선통배래이며 옆선의 무는 삼각형의 형태로 아랫단 부분에는 짧은 트임이 있다. 포를 여미기 위해 속고름과 겉고름이 있으며 안고름은 밝은 청색, 겉고름은 녹색으로 긴 고름 1개, 짧은 고름 1개가 달려 있다. 흉배는 녹색 운문단에 불로초를 부리에 문 학 한 마리와 구름무늬로 자수되어 있다.

This attire is presumed to have served as the civil official uniform for Bak Gi-jong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Western uniforms in 1900. The bluish green outer garment and lighter lining are made of high quality boiled or raw silk. An embroidered square insignia is attached to the front and back of the outer garment, each square depicting a single crane against a background of clouds.

135

박기종 대례복
朴琪淙大禮服

Full-Dress Court Uniform of Bak Gi-jong

대한제국 | 길이 99.5
부산광역시 시도민속문화재 제 8호
Great Han Empire | L 99.5
Local Folklore Materials No. 8 of Busan Metropolitan City

이 대례복은 박기종朴琪淙, 1839 ~ 1907이 문관 칙임관정1품 ~ 종2품 관료 시기에 착용하였던 것으로 광무光武 4년 1900 제정된 「문관복장규칙文官服裝規則」의 칙임관 2등에 해당하는 복장이다. 1900년 4월 이후 「문관복장규칙」의 제정에 따라 문관 관료들은 영국식 궁중 예복을 모방한 대례복을 착용하게 되었다. 박기종이 1900년에 중추원 의관議官 주임관 4등급으로 임명되었으므로 이 대례복은 1900년에서 1905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상의는 검은색 모직에 안감은 흰색 견직물을 사용하였으며, 앞이 짧고 뒤가 긴 연미복 형태이다. 상의의 전면, 후면의 뒷목 아래와 뒤 허리 중심, 칼라, 소매, 주머니 부분에 무궁화와 당초문을 금몰기법으로 자수되어 있다. 뒤허리 중심은 무궁화 자수 좌우에 무궁화문양이 새겨진 금단추가 각각 1개씩 달려 있으며, 소매는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모는 검은색 벨벳 소재에 모양은 산형山形으로 백색의 장식 털이 있으며, 우측 면에는 무궁화와 당초문이 자수되어 있다. 당시 칙임관 형식인 금색 브레이드로 가장자리를 장식하였으며 안감은 흰색 견직물을 사용하였다. 예도의 자루는 흰색 가죽을 사용하였으며 흰색의 긴 띠가 장식술과 함께 달려 있다. 손잡이 부분에는 무궁화 한 송이와 당초문이 투각하여 장식하였다. 금색의 순금사로 예도 집을 만들었으며 예도 띠는 금직으로 제작하였다.

This ceremonial court uniform was worn by Bak Gi-jong during his service as 2nd-grade Chigimgwan, a top-rank civil official in turn-of-the-century Joseon. The Reform of 1894 introduced Western uniforms for state officials as spelled out in the Rules on the Attire of Civil Officials enacted in 1900, the 4th year of Gojong's reign as Emperor Gwangmu of the Great Han Empire. The tail coat is made of black wool lined with white silk. The hat is a bicorne made of black velvet and trimmed at the top with white decorative fur. The hilt of the sword is made of white leather, and is attached to a long white ribbon with a tassel at its end.

예모 측면

대례복 소매

대례복 후면 상단

대례복 후면 하단